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 도내 최초 근대 상업시설 '동문시장주식회사'

화재 이후 건물 건립...제주의 최고 상권지로 부상

데스크승인 2013.05.19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 1980년대 동양극장과 동양시장(주)이 함께 운영됐던 모습. 건물 앞으로 지나가는 포니승용차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동문시장주식회사는 제주 최초의 근대 상업 건축물로 꼽히고 있다.

1963년 첫 삽을 뜬 후 2년 만인 1965년 완공됐다. 원래는 백화점과 영화관(동양극장)으로 설계된 건물로 신축 당시 도내 상업시설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건물면적은 3690㎡(1100평)로 본관은 2층이지만 영화관 객석을 포함하면 지상 4층 규모다.

시간을 거슬러 1945년 해방 전후 남수각 하천 하류인 동문로터리 일대에는 채소와 식료품, 신발과 포목을 파는 노점 좌판이 즐비했다.

초기 시장은 제주 상업의 근거지가 됐다. 매일 장이 서는 상설시장이 되면서 동문시장(≡) 자리에는 목조 가건물이 들어섰다.

그런데 1954년 3월 시장에 큰 불이 나면서 112채의 가건물은 잿더미가 됐다. 당시 피해액은 1억 7900만환에 달했다.

미 8군의 원조로 시장은 재기했으나 그해 10월 담뱃불로 또 다시 화마에 휩쓸렸다.

첫 번째 화재에서 간신히 남았던 23채의 가건물도 깡그리 사라졌다. 시장 상인들은 불 탄 자리에 다시 목조 건물을 올리고 함석 지붕을 얹었다.

상인들은 제주 최대의 상권에 번듯한 건축물로 짓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동문시장은 이미 재개발 대상이었다.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나고 이듬해인 1962년 2월 김영관 도지사가 부임하면서 재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는 해군 제독 신분으로 도지사에 임명됐다. 김 지사의 추진력으로 1962년 5월 동문시장주식회사가 발족됐고, 건축 설계에 들어갔다.

당시 제주신문(현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1억환의 공사비를 들여 현대식 건물로 설계됐다. 지붕은 상업 시설로는 처음으로 철골 구조로 지어졌다.

점포 265개, 사무실·다방·이발소·전당포 등이 들어서도록 했다. 상인들은 수익사업으로 2층은 영화관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1965년 동양극장이 탄생했다.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점포를 불하받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김 지사의 주선으로 제

일은행 등에서 사업비를 전액 용자받으면서 공사 착공이 본격화됐다.

이로 인해 이 건물 중앙에는 김영관 지사의 기증 현판이 남아 있다. 현판에는 착공일 및 기공일과 함께 도지사가 아닌 '해군소장(海軍少將)'으로 새겨 있는 것인 인상적이다.

처음엔 백화점으로 설계됐던 건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구로는 백화점은 시기상조라는 인식과 함께 상인 간 점포 배당 문제도 불거지면서 건물은 시장과 백화점을 절충한 복합형으로 신축됐다.

1965년 4월 28일자 제주일보의 기사를 보면 '상인 130여 명이 4월 26일 새 건물로 입주함으로써 반여 년 만의 바라크(막사) 생활을 마쳤다'고 보도됐다.

이 건물의 설계자는 제주 출신 건축가 고(故) 김한섭씨(1920~1990)가 맡았다. 1세대 현대 건축가로 꼽히는 그는 화북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송정공업중학교(현 목포공고)와 일본의 대학에서 건축 전문교육을 받았다.

전남대 건축과 교수를 시작으로 홍익대와 중앙대 교수를 역임했다. 건축계의 독보적 위치에 있던 그는 고향인 제주에서 처음 설계한 이 건축물에 모더니즘 양식과 낭만적 성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큰 지붕은 역동적인 곡선으로 배 앞머리를 닮았다. 지붕은 물결 모양을 반복했다. 먼 곳에서 보면 이 건물은 배를 닮은 모습을 띄고 있다.

영화관과 시장 점포가 이어지는 부분에는 '亞'자 문양의 뚫린 블록 쌓기로 이질적인 두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건축학계에선 계단 창문까지 여객선의 원형창을 도입하는 등 제주의 바다와 산지향을 모티브로 낭만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문시장(주)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내 최대의 쇼핑타운이었다.

시골에서 곡식을 갖고 올라온 농민들은 시장에 내다 판 후 이곳에 들러 옷과 고무신을 사고 갔다.

회사원들도 월급을 받는 날이면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장 내 간이식당에 들러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동양극장 입구에선 연탄불에 구운 쥐포를 사가려는 관람객들도 문정성시를 이뤘다.

1990년대까지 포목점은 계속 번성했다. 결혼을 앞둔 집안에선 가까운 친지들에게 선물할 예단(비단 옷감)을 이곳에서 주로 구입했다.

포목상들은 “예식 간소화 전까지 한 집안에서 적게는 10벌, 많게는 20벌의 한복을 만들 예단을 꿰고 간 후 혼례를 올렸다”고 회고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